

현대차 SUV 산타페·기아차 올 뉴 K3 A+



현대차 산타페



기아차 올 뉴 K3



기아차 더 K9

완성업체 올 출시한 신차 판매 성적표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올 한 해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며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을 만회하는 데 총력을 쏟았다. 갈수록 공세가 거세지는 수입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안방을 사수하기 위해 대대적 마케팅도 벌였다.

2018년의 끝을 일주일 앞두고 올 출시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신차 판매 성적표를 살펴봤다.

우선, 11월까지 집계치로 가장 많이 판매된 신차는 현대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산타페였다.

올 2월 출시된 신형 산타페는 지난달까지 9만 500대가 팔리며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SUV 최초 10만대 클럽 가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기존 산타페 모델까지 포함하면 올 들어 판매된 차량은 9만8559대에 달한다. 지난달까지 10만2682대가 팔린 같은 현대차의 중형 세단 그랜저에 이어 전체 판매대수도 2위다.

전기차 SUV인 코나 EV도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5월 첫 출시 이후 7개월만에 1만 106대 누적 판매량을 올렸다. 같은 기간 기존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판매 대수(5325대)의 두 배에 이를 정도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월 출시된 신형 K3(올 뉴 K3)가 3만5153대나 팔려나가면서 출시 첫 해 기분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기아차가 6년 만에 내놓은 올 뉴 K3는 '경차급 연비, 중형급 실내 공간'을 갖춘 차로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사전예약받기 시작한 지 7일

만에 예약대수가 6000대에 달하는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아차의 플래그십(대표) 세단 더 K9도 고급 수입차와의 경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아차 집계치로 더 K9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간 1만508대가 팔렸다. 성능과 편의사양을 고급 수입차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가격이 기아차 중에서 제일 비싼 모델인 데도, 매월 판매량이 1000대를 넘기며 꾸준하게 주목을 받았다.

기아차의 니로 전기차(EV)도 7월 출시 이후 3427대가 팔려나가며 출시 이후 한달 만에 전기차 베스트셀링카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실주행 거리가 400km를 육박하면서 충전소 부족 문제에도, 상품성과 경제성 면에서 구매력을 높일만한 충분한 요인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엠(GM) 쉐보레의 신차는 상반기 출시된 이쿼닉스가 좁히지만 판매량은 지난달까지 1292대에 머무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쌍용차의 경우 올해 1월 출시한 픽업 SUV인 렉스턴 스포츠가 지난 20일 기준으로 누적 판매 4만대를 기록하는 등 고무적 성과를 올렸다. 역대 쌍용차 SUV 브랜드로는 출시 첫 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출시 당시 목표였던 연간 3만대 판매도 지난 10월(3만3658대)에 달성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나 EV도 선풍적 인기

기아차 더 K9·니로 EV 쾌속질주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4만대 기록

한국지엠 이쿼닉스는 부진



현대차 코나 EV



기아차 니로 EV

경기부진에...국내 자동차 시장 내년에도 어렵다

이보성 현대차글로벌연구소장 전망...179만대 판매 예상

내년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이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자동차시장도 유럽·미국 시장의 판매 부진이 우려되면서 0.1%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우울한 수출 계획도 제시됐다.

24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은 지난 20일 한국 자동차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2019년 자동차산업 전망'과 관련, 내년 국내 자동차 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도, 경기 부진에 따라 179만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내 자동차 판매는 연간 0.9% 증가한 181만대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시장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대 시장의 부진으로 0.1%만 증가하는 정체가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에서는 구매세 환원과 마·중 무역분쟁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올 해 판매대수는 연간 4.1% 감소한 2315만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소장은 내년에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의 경우 올해보다 0.2% 증가한 2320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은 내년 금리 인상 지속과 업체들의 수익성 중시 전략 등으로 올해에 견줘 1.4% 감소한 1700만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 시장 역시 올해는 0.8% 성장에서 내년

에는 금리 인상 등에 따라 0.2%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장은 "내년에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시장에서 7~8%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대 시장의 정체라는 부정적 요인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세계 자동차 시장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정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 부진에도 전환 경치는 급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전기차(EV)의 성장으로 판매대수가 연간 20% 증가했고 내년에도 중국의 신에너지차 의무생산 규제 등이 시행되면서 올해보다 18.7% 증가한 401만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 9월부터 7자리 승용차 번호판 도입

123가 4568



내년 9월부터 앞자리 숫자가 하나 늘어난 7자리 승용차 번호판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제 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을 논의,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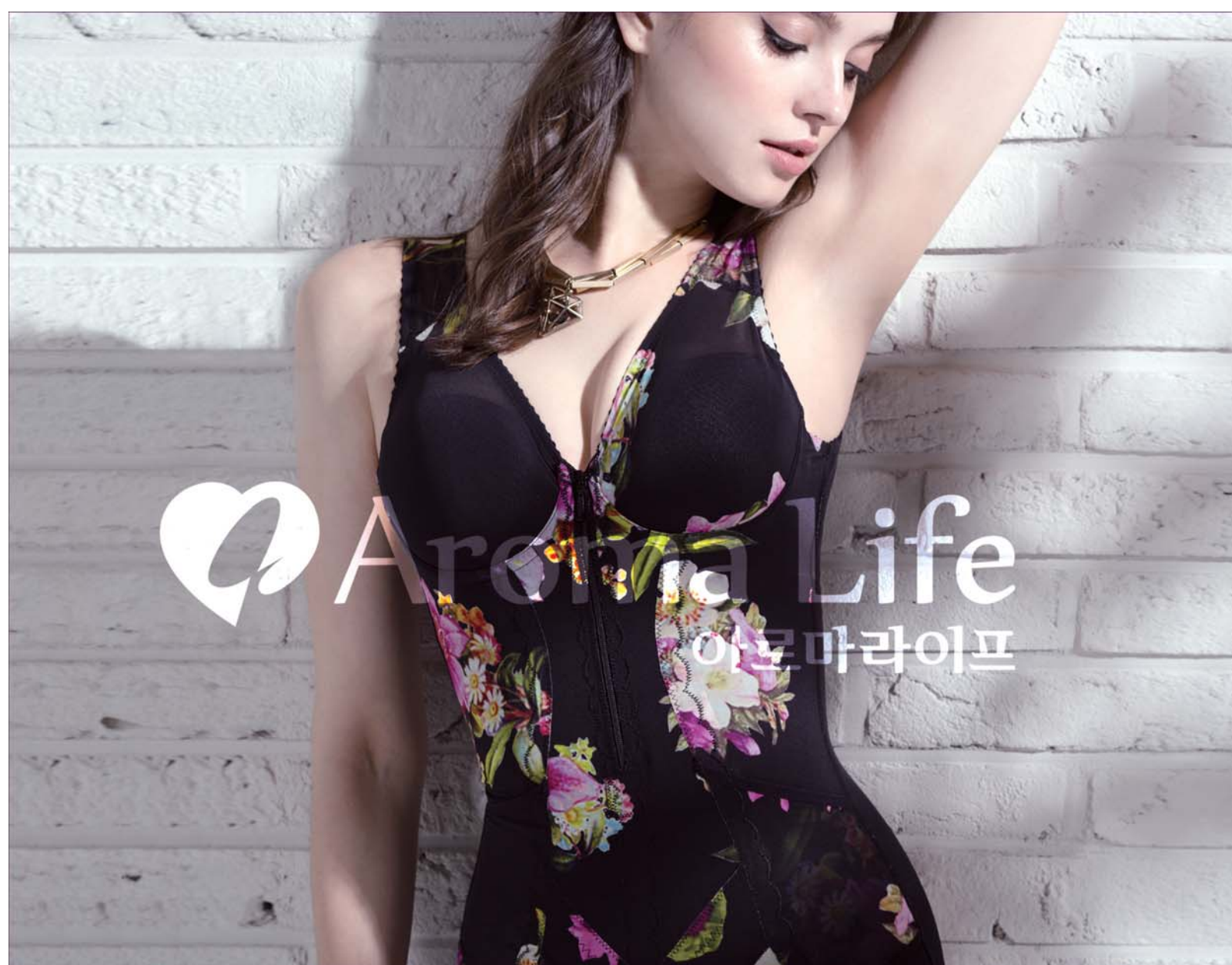
새 번호판은 맨 앞에 숫자 한자리를 추가해 '3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표시하는데, 이 경우 2억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로는 더 이상 표시할 수 없을 만큼 국내 등록 차량 숫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로는 2200만대의 자동차를 표시할 수 있는데, 차량 증가로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 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

번호판 디자인도 손질한다. 우선, 번호판 좌측에 청색 바탕에 국기를 형상화한 정제된 형태의 태극문양,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 형태로 국가상징문양을 넣고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도 새긴다. 밤에도 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번호판 재질을 반사필름으로 바꾼다. 번호판 바탕색은 기존처럼 흰색을 유지하도록 했다.

번호판 글씨는 현행대로 검은색으로 하고 글씨체도 변동 없이 유지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